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KILLING NOVEMBER

가제 : 아카데미 앱스콘디티: 노뎀버 죽이기

저자 : Adriana Mather

출판사: Alfred A. Knopf Books for Young Readers

발행일: 2019년 3월 26일

분량 : 416 페이지

장르 : 스릴러/2권 시리즈



*** 프랑스, 독일, 러시아 판권 계약 완료 / 2019 에드거 어워즈 후보작**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How to Hang a Witch의 저자의 시리즈 스릴러 소설**

울창한 숲 속, 이 학교는 결코 평범한 학교가 아니었다. 이 곳에서 학생들은 칼 던지기 기술, 독살 기술부터 시작해 속임수, 역사적 분석에 이르기 까지 일반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치지 않는 특별한 기술을 배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학교에서 미스터리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노뎀버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해 공지에 몰리게 되었다. 베일에 싸인 비밀스러운 사립학교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강렬한 흡입력을 가진 스릴러이다.

현재는 재무관리사이지만 과거에 CIA 요원으로 활동 했던, 노뎀버의 아버지는 항상 노뎀버에게 건강한 의구심은 사람이 모든 가능한 위험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노뎀버에게 이 모든 것은 이론에 불과했고 노뎀버는 어제 아버지가 가족을 위협하고 있는 위험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을 때조차 그 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 노뎀버는 완전히 중세 시대 같은 곳에서 깨어난 후, 이제 자신의 인생에도 진짜 위험이 다가왔음을 깨달았다. 눈 앞에는 경비병처럼 보이는 사람이 벽에 붙어 서있었는데 분명 노뎀버를 바라보고 있는 듯했다. 노뎀버는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고 모두 값비싸 보이는 것들이 잘 갖춰진 방이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창문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노뎀버는 영화 글래디에이터 속 로마 병사처럼 옷을 입고 서 있는 그 경비병에게 다가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침묵을 지키고 서 있을 뿐이었다. 노뎀버는 분명 아빠의말에 의하면 아버지가 위험한 일을 처리하는 동안 안전한 대피 장소가 되어줄 새로운 기숙 학교로 전학을 온 것이어야 했다. 하지만 자신이 갇혀 있는 곳은 아빠의 말과는 전혀 다른 곳인 것만 같았다. 얼마 후, 갑자기 열쇠 소리가 들리더니 방 안에 있던 경비병과 똑같은 모습을 한 또 다른 경비병이 문을 열고 들어왔고 밖으로 따라나 오라는 손짓을 했다. 하지만 바깥 모습도

강금 된 것 같은 분위기를 부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복도에는 전기로 작동하는 현대적인 전등 대신 햇불이 켜져 있었고 천장은 아치형이었으며 손잡이 대신 걸쇠를 사용하는 무거운 나무 문들이 있었다. 이 곳은 마치 미국에 있을 법한 평범한 건물들이 아니라 중세 시대어나 어울릴 법한 오래 된 성 같았다.

이윽고 노뱀버는 양초들의 연기와 고서로 가득한 영국 여왕이나 쓸법한 한 사무실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이 학교의 교장인 블랙 우드를 만났다. 그녀는 이 학교의 이름은 '아카데미 앵스콘디티'라고 소개했는데 그녀의 목소리와 태도는 순종과 복종을 명령하는 듯 했다. 교장은 노뱀버에게 여기까지 오는 데 불편한 것은 없었는지, 궁금한 것은 없는지 물었고 노뱀버는 이상하게도 자신이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으며 언제 이곳에 도착했고 언제 잠들었는지조차 모르겠다고 털어놓았다. 그러자 교장은 아마도 여정 중에 잘 도착하기 위해 한 일 때문에 부작용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뱀버는 '부작용'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혹시 누군가가 자신에게 약을 먹인 것은 아닌지 공황 상태에 빠졌다. 늘 낮선 사람이 주는 음료나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빠를 통해 교육 받긴 했지만 그 말을 여기고 기내에서 레모네이드를 마신 것이 기억났기 때문이다. 노뱀버는 교장에게 혹시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나 주변에는 전화기 한 대 보이지 않았고 교장 또한 교칙상 전화기 사용은 불가하다고 딱 잘라 말했다. 또한 교장은 원래 학기 중에는 신입생 입학은 허가 하지 않지만 특별히 노뱀버의 입학을 허락한 것이며 이 곳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나 실명을 말해서는 안되고 이를 어길 시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교장은 이 성 밖에는 곳곳에 함정이 숨어 있으므로 학교를 벗어나면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 했고 다른 학생들을 다치게 할 경우 '이 에는 이' 규칙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뱀버는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조금만 버티면 원래 생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마음에 교장에게 예의 있게 행동하기로 했다.

노뱀버는 다시 건물 창문들에 설치된 뾰족한 장치를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교장에게 물었다. 그러자 교장은 최근 치명적인 사건들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장은 노뱀버에게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고 그저 그녀를 안타깝다는 듯 바라 볼 뿐이었다.

이후 노뱀버는 전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경쟁하며 암살자, 카운슬러, 스파이 및 대변인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학생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노뱀버는 유력한 용의자로 몰리게 된다. 노뱀버는 누명을 쓰고 범죄자가 되거나 아니면 다음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 이 학교의 기괴한 전략 게임에 적응해야만 한다. 노뱀버는 과연 이 학교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까?

<저자 소개>

아드리아나 매더 (Adriana Mather)는 『How to Hang a Witch』, 『Haunting the Deep』의 저자이자 프로듀서 및 배우이다. 그녀는 수상경력을 가진 영화 'Honeyglue'를 제작 한 Zombot Pictures라는 제작 회사의 소유주이기도 하다.

제목 : GET A GRIP, VIVY COHEN!

가제 : 정신차려, 비비 코헨!

저자 : Sarah Kapit

출판사: Dial Books

발행일: 2020년 1월 25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성장소설



*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의 도전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야구 경기 기술, 결단력, 열정에 대해 이야기 하는 매력적인 야구 이야기이기도 하다.”- 「커커스 리뷰」

*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한 소녀가 자신이 좋아하는 야구를 하기 위해서 싸우는 긍정과 낙관 이 넘치는 이야기이면서 자폐증에 대해 진정성 있게 다루고 있는 소설”- 「북 리스트」

비비 코헨은 메이저 리그 스타가 될 때까지 야구를 그만 둘 생각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비비의 엄마는 여학생인데다 자폐증을 가진 비비가 하루 빨리 야구를 포기하기만을 바랐다. 그러던 어느 날, 비비의 상담 선생님은 비비에게 한 사람을 정해 펜팔을 해볼 것을 권유했다. 비비는 자신의 펜팔 대상으로 자신의 영웅이자 메이저 리그 투수인 VJ Capello를 선택했다. 비비는 과연 꿈을 이루게 될까? 남들과 다른 상황, 남들과 다른 꿈을 가지고 있는 한 소녀가 다른 사람들의 따뜻한 도움과 스스로의 용기 덕분에 점차 성장하게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비비는 자신의 이상인 야구 선수 VJ 처럼 너클볼 (두[세] 손가락을 굽히고 공을 던지는 느린 공) 투수가 되고 싶었다. 비록 비비의 엄마는 늘 역사상 메이저 리거 중에 여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말하긴 했지만 비비는 오히려 그렇다면 자신이 그 최초의 여성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꿈의 멘토 역시 바로 VJ였다. 사실 3년 전, 비비는 VJ를 실제로 만난 적이 있었다. 당시 VJ는 청소년 야구팀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비비는 그 때 캘리포니아에서 VJ가 참가한 경기에 자폐증 재단 및 부모님과 함께 관람을 하러 갔었다. 사실 비비는 시끄럽고 지루한 게임을 좋아하지 않았고 비닐 좌석이 자꾸 몸에 붙는 것도 불쾌해 하고 있었다. 때문에 비비의 엄마는 경기장을 나와 비비를 데리고 클럽 하우스로 들어가 선수들을 만나게 해주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사실 자폐증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비비를 향해 큰 소리로 말하곤 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때, VJ 만큼은 조용하게 비비에게 다가와 너클볼 방식으로 공을 쥐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그 날 처음으로 비비는 야구 선수의 꿈을 가지게 되었고 매일 같이 야구 연습을 했다. 그리고 상담 선생님이 내준 과제도 할 겸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위해 이제는 유명 선수가 된 VJ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 답장은 예상 대로 받지는 못했지만 비비는 계속해서 자신의 고민을 담은 편지를 VJ 에게 보냈다.

비비의 또 다른 고민은 평소 자신과 함께 늘 야구를 하며 놀아 주던 오빠가 어떤 일인지 슬슬 비비를 피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게다가 평소처럼 오빠의 방에 들어가면 노트북을 켜 달고는

비비에게 심하게 화를 냈다. 비비는 주변 사람들과 다르게 모든 사람들의 표정과 말투, 상황에 대해 자세히 기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마치 영상을 반복 재생하듯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시 기억해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다행히도 네이트는 다시 비비에게 다가와 함께 공원에 가서 야구 연습을 하자고 했고 비비는 공원에서 오빠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리고 VJ가 알려준 대로 야구 공을 던졌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현재 팀을 꾸리고 있는 중인 한 야구팀 코치가 비비의 너클볼 실력을 보고 야구팀에 들어오는 것이 어떨겠냐고 제안한 것이다. 그는 비비가 여자아이인 것도, 자폐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 말을 들은 비비는 미친 듯이 박수를 쳤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하지만 곧 나타난 코치의 아들이자 비비의 학교 한 학년 선배인 카일을 보자 비비는 표정이 굳어버렸다. 카일은 여자가 야구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비비를 향해 은근히 조롱하는 듯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비비는 엄마가 분명 야구단에 입단하는 것을 반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자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비비의 엄마는 여자 아이들에게 야구란 위험한 스포츠이며 게다가 자폐증을 가진 비비가 익숙하지 않은 자극과 사람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미리 걱정할게 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비는 자폐증을 가진 사람은 자폐증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만 해야 한다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 분명히 맞서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러나 네이트의 든든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예상 보다 엄마 아빠를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비비의 엄마는 비비가 야구를 하려는 마음이 자폐아들이 보이는 특성 중 하나인 ‘집착’ 현상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비비의 부모님은 이 문제를 비비의 담당 의사와 논의하기로 했고 그 결과, 비비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정식으로 야구단에 입단해 본격적인 투수로 야구 경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드디어 VJ가 비비에게 답장을 했고 부모님의 동의 하에 이메일로 소식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비비는 야구단에 입단해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VJ에게 이야기 했고 코치의 아들 카일이 자신을 괴롭히고 야구를 하다 뇌진탕을 당해 다시 야구를 그만둘 뻔했던 상황 등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조언을 구했다. 비비는 야구 팀에서 활약하면서 포수인 알렉스와도 돈독한 우정을 쌓아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비비는 남자를 좋아하면서도 부모님을 실망시킬까 봐 전전긍긍하는 오빠 네이트를 돕게 된다. 꿈과 용기를 가진 한 소녀가 사람들을 돕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며 꿈을 이루어가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그린 소설이다.

<저자 소개>

사라 카피트 (Sarah Kapit)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여성, 의학 및 역사 등 기타 특이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그녀는 장애 권리와 신경 다양성 운동에 오랫동안 참여해 왔으며 자폐증 공동체 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